

Multilingual Electronic Newsletter

多言語メールマガジン

かごしま南の風便り

Kagoshima Southern Wind Tidings



VOL.193

1 국제 교류원의 칼럼(가고시마현 국제교류원 : 김 주희)

- 인생 첫 오하라 마츠리에 참가하였습니다!

2 지사 관련 새 소식

- 재교토 프랑스 총영사가 방문하였습니다. (10 월 11 일)
- 재팬하우스 LA 에서 가고시마 현산품을 PR 을 진행하였습니다 (10 월 25 일)
- 남캘리포니아 가고시마 현인회 망자 추도법요에 참가하였습니다. (10 월 26 일)
- 남캘리포니아 가고시마 현인회 주최 환영 만찬회에 참가하였습니다. (10 월 26 일)
- 전미 일본계 박물관 시찰 및 Go For Broke 비에 현화를 하였습니다. (10 월 26 일)
- 남캘리포니아 가고시마 현인회 창립 125 주년 기념 식전 및 축하회에 출석하였습니다. (10 월 27 일)

3 가고시마 관광 정보

- 묘원사 참배 (10 월 26 일, 27 일)
- 카노야 장미 축제-가을- (10 월 26 일~11 월 24 일)

● 인생 첫 오하라 마츠리에 참가하였습니다! ●

-가고시마현 국제교류원 김주희(한국 출신)-

11 월 2 일부터 3 일까지 가고시마시에서 개최된 오하라 마츠리에 다녀왔습니다. 오하라 마츠리는 1949 년에 시작된 남규슈 최대 규모의 축제입니다. 춤 행렬의 메인을 소오도리(総踊り)라고 하는데요, 이 소오도리에는 약 2 만명을 넘는 사람들이 참여하며 가고시마 사람들에게는 익숙한 향토민요 「오하라부시」와 「가고시마한야부시」 그리고 시부야 가고시마 오하라마츠리에서 사용되는 「시부야 온도(音頭)」등의 노래에 맞춰 남규슈 최대 변화



오하라 마츠리의 명물인 꽃전차

가 텐몬칸 일대에서 이루어지는 가고시마의 가을을 대표하는 축제입니다. 저는 2 일 저녁에 실시된 전야제에 현청 오하라 동호회의 일원으로 참여했습니다. 오하라 마츠리의 며칠 전부터 연습에 참여하여 만반의 준비를 하였습니다. 저는 오하라 마츠리에 참여하는 것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제대로 따라 할 수 있을지 걱정되었지만 의외로 동작이 간단하고, 반복되어 금방 익힐 수 있었습니다. 또, 마츠리의 노

래들도 처음 들어봤지만, 굉장히 흥겨워서 노래에 몸을 맡기고 즐겁게 연습할 수 있었습니다.

당일 국제교류과의 동료들과 텐몬칸에 모였습니다. 벌써 많은 참가자와 구경꾼들이 모여 있어 축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저희 현청 오하라동호회는 아사히도리부터 시작해 텐몬칸도리까지 시덴 두 정거장 정도의 거리를 약 한 시간 동안



현 특산물이 프린팅된 핫피를 입었습니다!

춤을 추면서 이동하였습니다. 처음에는 한시간이나 춤을 춘다고 해서 힘들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중간중간 쉬는 시간도 있었기 때문에 생각처럼 힘을 들이지 않고 춤을 출 수 있었습니다. 연습을 반복하였지만 역시 실전이 되자 100 퍼센트 완벽하게 춤을 추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참여한 전야제는 이 오하라 마츠리를 즐기고 싶은 사람들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저의 실수도 귀엽게 넘어갔습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ㅎ



시오타 지사와 국제교류원 동료들

ㅎ) 저는 술을 잘 못마셔서 물을 마셨지만,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가고시마의 대표 특산품인 고구마 소주를 마시면서 오하라 마츠리를 즐겼습니다.

저는 국제교류원을 목표로 하고 준비했을 때부터 일본에 오면 가장 해보고 싶었던 것 중 하나가 그 지역의 마츠리에 참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번에 그 목표를 이룰 수 있어 정말



오하라부시에 맞춰 춤을 췄습니다.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가고시마의 가장 큰 축제인 오하라 마츠리는 간단한 안무만 익히면 정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축제입니다. 저 같은 똑딱이 외국인에게도 선뜻 자리를 내어주는 오하라 마츠리에서 가고시마와 가고시마 사람들의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본토의 남쪽에 위치하여 있어서 예로부터 개방적인 자세로 다양한 문화와 물건들을 받아들인 가고시마의 지역적 특성과도 관련이 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하며 저는 오늘도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시부야 온도를 흥얼거리고 있습니다.



현청 오하라 동호회의 단체사진

지사관련 소식

● 재교토 프랑스 총영사가 방문하였습니다. (10월 11일) ●

재교토 프랑스 영사관에서 산드린 무쉴레 재교토 프랑스 총영사가 가고시마에 오셨습니다. 총영사는 사쿠라지마의 아름다움이나 가고시마현민의 상냥함, 우리 현 섬들의 문화와 자연, 언어는 굉장히 다양해서 흥미로우며 카리브해에 있는 프랑스령 마르티니크와는 화산과 사탕수수, 사탕수수를 재료로 만든 럼 등 공통점이 많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번 방문으로 가고시마현과 프랑스의 교류가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산드린 무쉴레 총영사와

● 재팬하우스 LA 에서 가고시마 현산품을 PR 을 진행하였습니다

(10 월 25 일) ●

일본의 매력을 알리는 외무성의 시설인 LA 할리우드의 「재팬 하우스」 에서 현지의 식료품이나 의류업계의 바이어, 레스토랑, 잡화점의 사장, 셰프 등 약 60 명을 초대하여 현산품의 PR 만찬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만찬회에서는 가고시마현 소고기의 컷팅 시연이나 누룩을 사용한 발효 문화에 대한 세미나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미술랭 별 1 개를 받은 레스토랑 「UKA」 에서 방어와 뱀장어 등 수산물과 된장, 간장 등을 사용한 특별 메뉴를 손님들께 선보이기도 하였습니다.

참가자들은 「와규의 컷팅 기술의 박력과 마블링의 아름다움에 놀랐다」, 「가고시마현산 와규만의 감칠맛을 느낄 수 있었고 눈과 혀 모두 최고의 경험이었다」 라고 높은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이외에도 현 전통 공예품을 대표하여, 오시마 츠무기, 사츠마 키리코, 갑옷 등을 전시하였고 참가자들은 「가고시마의 역사와 전통을 느낄 수 있었고 꼭 가고시마에 방문하고 싶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으며, 음식과 관광, 전통적 공예품등 다방면에서 우리 현의 매력이 전해졌다고 생각합니다. 만찬회를 개최함에 있어 재 LA 영사관, 재팬하우스, JETRO 로스앤젤레스, 남캘리포니아 현인회의 관계자 여러분들을 비롯하여 도움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세미나에서 인사하는 모습



●회장의 모습

● 남캘리포니아 현인회 망자 추도법요에 참가하였습니다. (10 월 26 일)



미국 LA 에 남캘리포니아 가고시마현인회 창립 125 주년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망자 추도 법요에 참여하여 현인회 활동의 초석을 다져주신 선배님들의 영을 추도하였습니다. 남캘리포니아 현인회가 창립 후 125 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활동을 이어올 수 있던 것은 먼 이국의 땅으로 이주하여 고생하시고 이제는 돌아가신 선인들의 가고시마현민이라는 강한 인연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추도 법요의 모습

● 남캘리포니아 현인회 주최 환영 만찬회에 참가하였습니다. (10 월 26 일) ●

미국 LA 시에서 캘리포니아 이주자가 역임하고 있는 지자체의 시장과 경제단체의 관계자분들과 남캘리포니아 현인회 임원 여러분들이 열어주신 만찬회에 참가하여 환영을 받았습니다.

오하라 프랭크 요시후미 남캘리포니아 가고시마현인회 회장은 「같은 지역 출신 자끼리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친목을 다지고 싶다」 는 말을 전하였습니다. 만찬회

에서는 현인회 여러분들의 일이나 생활, 현인회 활동 등 많은 이야기를 듣고 친목을 다졌습니다.



●오하라 프랭크 요시후미 남캘리포니아
가고시마현인회 회장과

● 전미 일본계 박물관 시찰 및 Go For Broke 비에서 현화를 하였습니다. (10 월 26 일) ●

남캘리포니아 현인회 125 주년 기념식전 및 축하회에 참가하기 위해 방문한 미국 LA 시에서 일본계 미국인과 관련된 유물이나 사진, 필름, 문서 등 광범위한 컬렉션의 전시와 일본계 미국인의 이야기를 전미, 전세계에 전하기 위해 1992 년에 개관한 전미 일본계 박물관에 방문하였습니다.

이 박물관은 일본계 미국인의 체험을 전하는 미국의 첫 시설로 다양한 전시와 교육 프로그램, 영상, 출판물의 작성을 통해 일본계 미국인의 이야기를 미국 뿐 아닌 전세계에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2 차대전에 참전한 일본계 미국인을 현창하기 위해 만들어진 Go For Broke 비에서 헌화를 하였습니다.



●남캘리포니아 가고시마현인회의 여러분들과



●전미 일본계 박물관의 모습

● 남캘리포니아 가고시마현인회 125 주년 기념식전 및 축하회에 출석하였습니다. (10 월 27 일) ●

미국 LA 시내에서 개최된 「남캘리포니아 현인회 창립 125 주년 기념 식전 및 축하회」에 출석하였습니다. 1899년 창립 이래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며 가고시마와의 연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서로를 도와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여 125주년이라고 하는 기념할 만한 해를 맞은 남캘리포니아 가고시마현인회 여러분들께 깊은 경의를 표함과 동시에 현인회 여러분들의 오랜 노고를 치하하였습니다. 또한 남캘리포니아에서 가고시마현인으로서 활약하신 분들께 표창을 전달하

였습니다. 함께 개최된 축하회에서는 현측 방문단과 현인회원 여러분들을 시작으로 많은 관계자분들과 성대하게 축하 하였습니다.



●기념식전 및 축하회에서 인사하는 모습



●회장의 모습

가고시마 제철 관광 정보

●묘원사 참배(10 월 26 일,27 일)●

가고시마 3 대 행렬 중 하나로 가고시마 시내에서 히오키시 이쥬인정까지 약 20Km 를 걸으며 참배하는 전통행사입니다. 적을 돌파한 후 고된 전투의 끝에 귀환한 시마즈 요시히로를 기리며, 평화로운 시대에 사기를 고무시키고 몸과 마음을 단련하기 위해 가고시마성 아래의 무사들(서민은 메이지 이후)은 세키가하라 전투 전날 밤인 음력 9 월 14 일, 밤새 왕복 40 km를 걸으며 갑옷과 투구로 무장하고 요시히로의 위패가 놓인 절에 참배를 가는 행렬을 시작하였습니다. 폐불훼석으로 토쿠시게신사로 바뀌고 나서도 참배는 계속되었습니다. 현재에도 향토예술의 봉납과 무술대회, 가족 방문객으로 봄비는 릴레이걷기 등 5 만명 이상의 사람들이 방문하였습니다.



●행사의 모습 「© K. P. V. B」

● 카노야 장미축제 -가을-(10월 26일~11월 24일) ●

가을에 피는 장미는 천천히 꽃을 피우기 때문에 색과 향기가 진하며 한 송이의 크기가 큰 것이 특징입니다.

올해는 「타카스중 대도예 페스티벌 2024」를 「카노야 장미축제 2024-가을-」의 오프닝 이벤트로 선보였습니다. 주말은 미니 도그런이나 미니카페, 푸드트럭 페스티벌, 무대 이벤트나 장미와 관련된 체험 등이 열릴 예정으로 많은 방문객이 올 것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예쁘게 핀 장미들



가고시마현청 홈페이지 <http://www.pref.kagoshima.jp/>



편집후기 (가고시마현 관광 · 문화스포츠부 국제교류과)

가을도 깊어져 은행과 단풍이 예쁘게 물드는 계절이 왔습니다🍁
아침과 밤에는 꽤나 추워져서 가을 없이 겨울로 순간이동 한 것같다고 느껴집니다. 갑작스런 기온의 변화에 몸이 적응하지 못해 독감이나 감기의 유행이 시작되는 계절입니다만, 밥 잘 챙겨드시고 충분한 수면시간을 확보하여 같이 건강하게 겨울을 이겨내봅시다☺

그럼 다음호도 기대해주세요★🍁



「가고시마 남쪽바람소식 게시판」에서는 가고시마에 관한 화제를 다음과 같이 모집 및 게재합니다.

1. 가고시마 포토 갤러리

가고시마만의 매력이 담긴 사진이나 해외에서 발견한 가고시마의 사진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사진에 관한 간단한 설명과 함께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산더미처럼 쌓인 화산재 봉투)

2. 가고시마 생활의 지혜

가고시마의 생활에 관한 정보를 공유해 주십시오. (예: 사쓰마아게를 맛있게 먹는 법, 화산재 대처법)

이 밖에도 독자 여러분과 공유할 여러분의 다양한 정보를 기다립니다.

▲▽▲▽ 기사 제공 및 문의처 ▲▽▲▽

일본 가고시마현 관광 · 문화스포츠부 국제교류과

〒 890-8577 가고시마시 가모이케 신마치 10-1

TEL: +81-99-286-2306

FAX: +81-99-286-5522

↓전자메일 주소

영 어 : cir1@pref.kagoshima.lg.jp

중국어 : cir2@pref.kagoshima.lg.jp

한국어 : cir3@pref.kagoshima.lg.jp

일본어 : minami@pref.kagoshima.lg.jp

본 기사의 저작권은 가고시마현에 있습니다. 무단게재와 불법복사를 금합니다.